취약계층 자활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오강임*ㆍ김인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ㆍ**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d Application for Utilizing Programs as Community Garden Types for the Promotion of Vulnerable Groups' Self-Support

Oh, Kang Im* · Kim, In Ho**

*Gyeonggi Agrofood Institute

**Dept. of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Shingu College

ABSTRACT

In this study, programs to improve the self-support ability of vulnerable groups were developed by different community garden activity types and these programs were applied to the homeless and the elderly to propose methods of application of the programs. The programs utilizing community gardens can be classified into healing type, self-consumption type, social relation type, and job related types. The effects of the programs to improve the self-support of vulnerable groups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programs by type were proposed. The derived programs were applied to the homeless and the elderly 11 times and 10 times, respectively, and the application methods and proportions of each of the four types of programs were propos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evaluation. As the result of the program, 90% of the respondents showed that they felt motivated to participate in other programs indicating that they obtained their life goals and their self-esteem was enhanced compared to befo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In the evaluation of improvement of sociality, positive changes were shown in the domains of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 elderly were divided into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to measure their resilience and community spirit and the two groups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Given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research proposed that when applying community garden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improvement of vulnerable groups' self-support, the conditions of participants should be examined first, that the healing type, self-consumption type, social relation type, and job type programs should be applied step-by-step, and that the proportions of application of programs by type should be chang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groups.

Key Words: Community Garden, Self-Support, Vulnerable Group, Community Garden Utilizing Program (Healing Type, Self-Consumption Type, Social Relation Type, and Job Type)

[†]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과제번호: 16AUDP-B068892-05). **Corresponding author:** Kim, In-ho, Dept. of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Shingu College, Phone: +82-10-3745-7620, E-mail: kimih@shing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커뮤니티가든 활동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숙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자활 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커뮤니티가든을 활용한 활동은 치유형, 자가소비형, 사회관계형, 일자리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문헌고찰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 증진 효과를 고찰한 후 유형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11회차, 10회차 시범 적용한 뒤 참여자 관찰평가를 통해 4가지 유형별 프로그램의 적용 방법과 비중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 노숙인은 프로그램 시행 전과 비교하여 전체 응답자의 90%가 삶의 목표를 얻게 되었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유발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성 향상 평가에서도 의사소통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노인은 프로그램 시행 후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구분하여 회복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을 측정하였는데,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 취약계층 자활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프로그램 적용 시 사전에 참여자 상태를 파악하고 치유형, 자가소비형, 사회관계형, 일자리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특성에 따라 유형별 프로그램의 적용 비중에 차이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커뮤니티가든, 자활, 취약계층, 커뮤니티가든 활용프로그램(치유형, 자가소비형, 사회관계형, 일자리형)

I. 서론

도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친화형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근교의 주말 농장에서 시작된 텃밭활동은 도시 내에서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공동텃밭과 옥상정원으로 발전하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공동체성 약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생산적 활동을 기반으로 주민참여,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커뮤니티가든이 주목받고 있다.

커뮤니티가든은 커뮤니티(Community)와 가든(Garden)의합성어로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사회적인 측면과 정원의 생산적, 환경적 측면이 복합됨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박은지 등, 2011). 특히 북미지역에서는 커뮤니티가든의 재배 및 경작 행위와 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지역 유대감 및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도시녹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참여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되어왔다(최정민 등, 2018).

취약계층은 인적 속성(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이나 취업형태(비정규직 등) 등 접근 방법과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다를수 있으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적 능력, 정치적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 그리고 보호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총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총체적 접근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이란 건강과 관련된 내적, 외적 자원의 격차 때문에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불공평한 기회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을 말한다(이화영, 2016). 취약계층에게 자활능력 증진이란 심신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자활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습득한 기술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과 불황을 겪으면서 도시 빈민의 식량문제 해결과 심신의 치유를 위한 텃밭활동이 커뮤니티가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숙미, 김인호(2014)는 자활 능력 증진을 위한 국외도시농업¹⁾ 사례분석을 통해 커뮤니티가든 활동을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① 도시농업 활동에 흥미를 갖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심신의 회복을 돕은 치유형, ② 개인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비 지출 절약에 도움이 되는 자가소비형, ③ 이웃과함께 도시농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게 되는 사회관계형, ④ 생산활동을 통해 수입과 일자리를 갖게 되는 일자리형이다(그림 1).

이에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자활 증진을 위해 4가지로 제안된 커뮤니티가든 활동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평가하여 취약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프로그램 적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커뮤니티가든이 취약계층에게 적용될 때 구체적인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취약계층 자활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동 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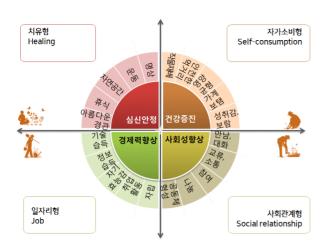


그림 1. 자활능력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동 유형 (이숙미와 김인호, 2015 참조하여 연구자 재작성)

개발하기 위해 관련 문헌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각 활동 유형에 따라 적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치유형 프로그램은 190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원예치료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효과를 고찰하고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가소비형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대학, 법인, 시민단체 등 21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한 도시농업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직무분석을 통해 개발하였다. 사회관계형 프로그램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舊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진행한 '도시텃밭공동체 프론티어^{2)'} 사업에 참여한 4개 기관의 활동프로그램을 분석한 뒤, FGI(Focus Group Interview)³⁾ 기법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⁴⁾. 일자리형 프로그램은 도시농업 관련 기초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아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중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노숙인은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노숙인 지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총11회차를 진행하였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결핵환자 및 기타 질병으로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재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소한 뒤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프로그램 계획 당시16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총10명이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 참여자 진단평가를 위해 식물관리 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텃밭 활동 경험은 참여자 대부분이 있었으며, 그 중 3명은조경시공 경험자도 있었다. 커뮤니티가든에서 하고 싶은 일은

먹거리 생산이 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야유회로 가고 싶은 곳을 묻는 질문에는 8명이 산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

대상자 진단 평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총 11회차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프로그램은 노숙인 지원주택 옥상에 조성된 커뮤니티가든과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정확한 목적 전달과 운영을 위해 주강사 1인과 보조강사 1인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자가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노인은 강원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차를 진행하였다. 영월군은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는 곳으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기술개발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지역이다. 참여자 모집은 주거복지지원센터에 홍보포스터를 통해모집하였으며, 총 10명의 노인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진단평가시 정신장애, 관절염 등 신체장애가 일부 있는 분들이 있었고,식물관리 관련 교육 경험은 전혀 없었다.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여가취미활동, 지역일자리 연계활동을 원했으며, 허브식물, 식물활용 공예활동, 정원계획에 관심을 나타냈다.

대상자 진단평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총 10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주거복지지원센터 내 사무실과 주변 공터를 활용하였다. 매 회차가 끝날 때마다 간단한 인터뷰와 소감을 나누었으며, 프로그램 시행 후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김주환(2011)의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KRQ-53척도와 McMillan &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SCI)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자활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동 유형별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참여자 특성별, 프로그램 적용 순서와 비중, 적용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그림 2).

Ⅲ. 결과 및 고찰

1. 취약계층 자활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그림 2. 연구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⁵⁾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화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연계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교차한다. 긍정적 평가는 자활사업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일정하게 기여했다는데 초점을 두고있으며, 부정적 평가는 자활사업의 낮은 자활성공률에 초점이 맞춰진다(김정원 등, 2013). 이에 201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공공과 민간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역량강화와 근로의지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도되어 왔는데, 경제적 자활을성취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왔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서는 인간의 동기와 그에 따른 행동, 만족감을 총체적으로 유발하는 '욕구'와 연결해 볼 수 있다. 마쓰오에이스께(2009)는 사람이 감정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섯 단계의 매슬로우 욕구단계이론과 정원활동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신선한 공기, 영양이 가득한 음식물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며, 심리적 긴장의 완화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안전의 욕구가 충족된다. 정원활동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책임감과 필요성을 느껴 사회적 욕구가 충족된다. 정원활동은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울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며, 도전의 기쁨과 삶의 보람을 통해 자아실현 욕구를 달성한다고 설명하였다(그림 3).

취약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해 커뮤니티가든을 활용할 때 각 각의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욕구단계를 설정한 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그림 4). 보 건복지부 자활사업 평가를 살펴보면, 경제적 자활에 앞서 정서 적 자활이 우선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5.자아실현 욕구	도전+기쁨과 삶의 보람
4.존경의 욕구	인정(칭찬)받고 있는 기쁨
3.사회적 욕구	공감/연대의식/동아리
2.안전의 욕구	꽃과 식물환경
1.생리적 욕구	오감으로 느낌,신체를 움직인다.

그림 3. 매슬로우 욕구단계이론과 정원활동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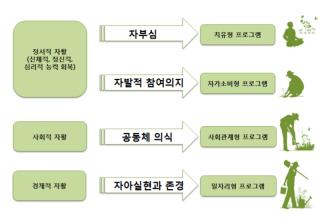


그림 4.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동 프로그램 효과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정서적 자활을 위해서는 자부심과 자발적 참여의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치유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부심을 부여하고, 자발적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자가소비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매슬로우 욕구단계에 따라 정서적 자활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자활, 경제적 자활에 도달할 수 있다. 사회적 자활을 위해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자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1) 치유형 프로그램

커뮤니티가든을 활용한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원예치료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치료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옥상정원은 환자 들에게 신체 증상의 경감, 스트레스의 감소 및 감정적·신체적 안정, 오감 자극을 주는 환경으로 치료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참여정원으로의 기능과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김미영, 2011).

인간은 활동을 통해 존재 가치를 부여받고 인간의 존재가치를 작업(활동) 참여에 두고 있다는 인간의 작업성 모델(model of human occupation: MOHO)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삶의 질과 우울한 마음을 개선하여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동기부여, 습관화, 수행기술과 상호작용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다. 만족감과 성취감 향상을 위해각 프로그램이 작품으로 완성되도록 하여 선물하거나, 장식이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유형 프로그램은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 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미약해진 심신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자활의 초기단계에 적용이 가능하다(표 1).

표 1. 치유형 프로그램

구분	설명	프로그램 예시
동기 부여	난이도 낮고, 감각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경재배, 꽃바구니 만들기 등
인지적 요소	원예작업 수행을 조직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압화만들기, 관엽식물 기르기 등
수행기술 증진	미세 손기술 등 수행기술 증진 프로그램	허브비누만들기, 향초만들기 등
상호작용 증진	그룹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와 사회인지 증진 프로그램	토피어리만들기, 디쉬가든 만들기 등

2) 자가소비형 프로그램

자가소비형 프로그램의 목적은 커뮤니티가든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스스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1개 경기도 내 대학, 법인, 시민단체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컴 직무분석을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였다⁶⁾.

교육과정은 '도시농업에 대한 가치와 바른 먹거리를 이해하고, 도시농업관련 제반 기술과 기반조성 및 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도시농업기술, 기반조성 및 관리, 자재조달 및 사용, 도시농업이해의 4개의 능력단위와 능력단위별 10개 내외의 능력단위요소 총 38개를 선정하였다.

자가소비형 프로그램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얼마간의 식비 지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자발적 참여의지를 높여 자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표 2).

표 2. 자가소비형 프로그램

구분	설명	프로그램 예시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 일반적 기초내용	도시농업의 이해, 바른먹거리
도시농사 기술	작물 재배를 위한 기초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채소재배, 작물재배, 파종육묘번식, 풀·곤충관리, 양·수분 거름관리, 수확과 갈무리, 생산물 이용
기반조성 관리	도시농업을 위한 기반조성	텃밭 조성, 퇴비장 조성, 관배수로 관리, 폐기물 관리, 시설물 월동관리
자재조달 사용	농산물 생산 위한 자재조달 능력	거름만들기, 친환경농약제조, 농기구자재 사용관리

3) 사회관계형 프로그램

사회관계형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관계형 프로그램 개발은 2015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시행한 '도시텃밭공동체 프론티어'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리자와 전문가 등 6인을 대상으로 약2시간 동안 FGI를 시행하였다. 각 시민단체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범주화하여 총 5개로 구분하였다. 텃밭교육프로그램, 지역나눔봉사프로그램, 예술문화프로그램, 텃밭운영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으로 구분된 5개 프로그램에서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는세부 내용을 선별하고, 상세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사회관계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회적인 교류를 갖게된다. 또한, 사회관계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나누며, 그 속에서 지지와 대인관계가 향상되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일깨워 사회적 자활을 증진시킬 수 있다(표 3).

4) 일자리형 프로그램

커뮤니티가든은 다원적 기능과 역할을 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식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일의 특성상 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작물의 수거 등누구나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많고,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판매가능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으며, 생산만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 가공, 제조,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시농업법)을 제정하였고,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

표 3. 사회관계형 프로그램

구분	설명	프로그램 예시
지역나눔	텃밭의 수확물로 이웃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수확물 나눠주기, 물물교환, 절임식품나누기, 팜파티, 꽃차, 허브식물나누기 등
예술문화	텃밭 공간을 활용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시농제(윷놀이, 풍년기원행사, 풍물놀이 등), 텃밭갈무리, 텃밭음악회, 동네예술제 등

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자리형 프로그램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표 4).

2. 취약계층 자활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동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분석

취약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해 도출된 유형별 커뮤니티가든 활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을 적용한 후 효과를 분석하였다.

1) 노숙인 대상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분석

노숙인은 서울시 마포구 지원주택 행복하우스에 거주하는 노숙인 10인을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총 11회 진행하였다. 사전 대상자 진단평가를 통해 정서적 자활을 목표로 하였으며, 식물재배 기술 및 제철음식을 활용하는 자가소비형 프로그램 6 회차, 정서적 안정 및 치유를 위한 치유형 프로그램 4회차, 동 료와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사회관계형 프로그램 1회차를 진 해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후 만족도와 자이존중감의 변화를 평가하였는데,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사가 개인별 활동을 관찰기록하고 인터뷰하여 측정하였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87%로 높은 편이었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자가소

표 4. 일자리형 프로그램

구분	설명	프로그램 예시
도시농업이해 /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관련 법, 제도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도시농업관련 법과 제도, 바른 먹거리, 도시농업과 도농상생
도시농업 기반조성 /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을 위한 기반조성 및 농산물 생산을 위한 관리기술	텃밭조성, 흙알기, 거름만들기, 친환경농약 제조, 농기구 자재사용관리, 도시농업시설관리, 안전사고관리, 텃밭설계, 관배수시설, 폐기물 관리
도시농업 기술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채소재배, 벽면녹화기술(작물재배 포함), 파종육묘번식, 풀, 곤충관리, 양·수분, 거름관리, 수확과 갈무리, 생산물 이용, 원예를 통한 정서 순화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도시농업 리더십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리더십과 갈등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시농업 리더십, 갈등관리

비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참가자의 90%가 프로그램 참여 후 삶의 목표가 생겼으며, 80%의 참가 자가 이웃과의 사이가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숙인 대상으로 실시한 유형별 커뮤니티가든 활동 프로그램은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변화를 보이며, 정서적자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2) 노인 대상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분석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강원도 영월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0 인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차를 진행하였다. 사전 대상자 진단평가를 통해 사회적 자활을 목표로 하였으며, 치유형 프로그램 8회차, 사회관계형 프로그램 1회차, 일자리형 프로그램 1회차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후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공동체 의식을 평가하였다. 총점 265인 회복탄력성은 참여그룹 180, 비참여그룹 178로 대한민국 평균인 195보다 낮았고, 두 그룹 모두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단계로 측정되었다.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그룹의 공동체 의식은 평균 3.2로 같았다⁷⁾. 이것은 정기적인 도시텃밭 프로그램 없이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서울 도봉구의 공동체의식 평균인 3.37(박태호 등, 2012)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형별 커뮤니티가는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자활을 목표로 하였으나, 회복탄력성과 공동체의식 평가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특성상 초기단계의 치유형 프로그램이더 요구되었기 때문에 사회관계형 프로그램의 적용 비중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표 6).

표 5. 노숙인 대상 커뮤니티가든 활동 프로그램

회차	프로그램	구분
1회차	아프리칸 바이올렛 삽목	치유형 프로그램
2회차	버섯재배 및 버섯전골 만들기	지기소비청 ㅠㅋㄱ래
3회차	버섯재배 및 버섯샌드위치 만들기	자가소비형 프로그램
4회차	허브비누 만들기	치유형 프로그램
5회차	지역주민에게 화분 나눠주기	사회관계형 프로그램
6회차	숲길 걷기, 숲 치유	키오청 ㅠ그그래
7회차	다육 화분 만들기	치유형 프로그램
8회차	제철 채소로 피클 만들기	
9회차	감자, 앵두나무 심기	기기소비청 ㅠㅋㄱ래
10회차	엽채류, 과채류 모종 심기	자가소비형 프로그램
11회차	친환경 농약 제재 만들기	

표 6. 노인 대상 커뮤니티가든 활동 프로그램

회차	프로그램	구분
1회차	압화이름표 만들기	
2회차	아로마테라피, 컵받침만들기	
3회차	꽃차만들기와 시음	
4회차	꽃차만들기와 스트레스해소	치유형 프로그램
 5회차	숲길 걷기, 숲 치유	
- 6회차	압화스탠드 만들기	
7회차	구지뽕잎차, 고염잎차 만들기	
8회차	꽃차농장과 사업장 견학	일자리형 프로그램
9회차	주민들과 팜파티	사회관계형 프로그램
10회차	소이양초 만들기	치유형 프로그램

Ⅳ. 결론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동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안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4가지 커뮤니티가든 활동 유형 별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자활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치유형 프로그램은 수경재배, 압화 만들기, 허브비누 만들기, 토피어리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고, 원예작 업 수행을 습관화하고, 미세 손기술 등 수행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자가소비형 프로그램은 참여자 스스로가 작물을 키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일반적 기 초내용을 바탕으로 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기초 이론 및 실습, 자재조달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활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정서적 자활을 높인다. 사회관계형 프로그램은 공동 작업을 통해 참여자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대인관계를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시농제, 수확물 나눠주기, 팜파티, 텃밭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일자리 형 프로그램은 도시농업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 농업관리사' 자격과정을 제안하였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 득하게 되면 도시농업 관련 기관에 취직하거나, 조직화된 생산 현장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자활을 이룰 수 있다.

둘째, 노숙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가든 활동 프로그램을 적 용하고 평가한 결과,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변화를 보 이며, 정서적 자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적 용 시 사전 대상자 진단평가를 통해 참가자의 욕구가 있는 프 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치유형 프로그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 되, 매 차시 참가자의 관찰평가와 인터뷰를 통해 자가소비형 프로그램 비중을 높였다.

셋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자활을 목 표로 하였으나. 회복탄력성과 공동체의식 평가에서 성과를 보 이지 못했다. 노인의 특성상 자활의 초기 단계인 치유형 프로 그램을 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커뮤니티가든 활용 프로그램의 적용 순서는 치유형 프로그램부터 자가소비형 프로그램. 사회 관계형 프로그램. 일자리형 프로그램으로 순서대로 적용하되. 정서적 자활을 위한 치유형 프로그램과 자가소비형 프로그램 을 혼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비중은 노숙인의 경우는 각 프로그램의 비중을 같게 적용할 수 있으며, 노인의 경우 치유 형 프로그램 적용 비중을 높게 할 것을 제안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커뮤니티가든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참여자 의 인구학적 특성 및 심리상태, 참여자의 욕구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적용 순서, 적용 비중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 차시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참여자의 관찰 평가 와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중 노숙인과 노인만을 대상 으로 하였고, 짧은 차시만을 적용하여 각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제한적인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든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자활능 력을 증진할 수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취약계 층에게 커뮤니티가든을 활용한 자활 증진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 1. 농촌진흥청(2010)에서는 커뮤니티가든을 도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문제, 먹거리의 안전성 불안, 열섬현상,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언급하고 있다.

주 2. 도시텃밭 공동체 프론티어란 도시농업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도시텃밭 구성원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도시텃밭의 재배기술만을 전수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뛰어넘어 도시텃밭을 통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촉진하 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경기농림진흥재단, 2015).

주 3. FGI(Focus Group Interview)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한꺼번에 하는 인터뷰로, 연구참여자의 의견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동질적인 그룹을 구성하여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주제를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의 태도, 인식, 견해와 같은 질적 자료를 생성하기 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주 4. 본 연구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주최한 '도시텃밭 공동체 프론 티어 매뉴얼 개발 연구'를 FGI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주 5.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근 로능력과 노동시장 참여 의지를 배양하고, 일시적인 빈곤에 직면한 중 산층이 장기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법제화된 정책사업이다.

주 6. 데이컴 직무분석을 위해 8명의 데이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직무분석

- 전문가 1명은 데이컴 직무분석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가 진행을 하였으며, 전문패널 7명은 도시농업 분야에 종사하 거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실무자가 참여하였다.
- 주 7. 본 연구는 박태호 외(2012) 연구에서 사용한 공동체의식 측정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McMillan and Chavis(1986)의 SCI(Sense of Community Index)가 적용되었는데, 욕구충족, 구성원 의식,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의 4가지 구성요소별 각 3가지 문항으로 질문을하고 5점 리커트착도로 측정하였다.

References

- 1. 김미영(2011) 병원옥상정원을 이용한 원예작업치료 효과분석, 서울시립 대학교 이학박사학위논문.
- 2. 김정원, 이문국, 전세나(2013) 자활사업 제도개선 방안 -사회적 경제 개 발전략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8: 7-44,
- 3. 김인호, 김진희, 박영주, 이해주(2015) 내집내직장 도시텃밭 조성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표준교육과정 개발 최종보고서. 경기농림진홍재단
- 4. 김인호, 김유진, 김정숙, 오강임(2015) 도시텃밭 공동체 프론티어 매뉴 얼. 경기농림진흥재단.
- 5.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 6. 농촌진흥청(2010) 도시농업 표준영농교본. 농촌진흥청.
- 7. 마쓰오에이스께(2009) 손기철 외 역. 사회원예학의 권장.

- 8. 박은지, 이연숙, 안창헌(2011)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자본 관점 특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지 11(6): 117-125.
- 9. 박태호, 이인성(2012) 도시텃밭 운영 프로그램이 참여자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40(5): 119-128.
- 10.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11. 보건복지부(2010) 자활분야 사회서비스 10년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 부
- 이숙미, 김인호(2014) 자활능력 증진을 위한 국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17(5): 395-403.
- 13. 이화영(2016) 취약계층 건강보장의 인권적 근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 기학숨대회 초록집.
- 14. 최상미, 홍영표, 김한성(2017) 한국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시행과 효과성 평가 -경기지역 지역자활센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4): 179-199.
- 15. 최정민, 김유나, 박동찬(2018)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 및 국내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주거환 경학회지 16(1): 83-104.
- McMillan, D. W. and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Received: 12 December, 2018 Revised: 17 December, 2018 Accepted: 20 December, 2018

3인익명 심사필